

1920-30년대 韓國 歷史小說에서의 木蘭 형상

이영숙*

<目 次>

1. 들어가는 말 목차
2. 1920-30년대 한국 사회와 여성의 역할
3. 1920-30년대 한국 역사소설의 성행과 그 의미
4. 한국역사 속 목란의 부활
 - 1) 『木蘭詩』와의 연관성
 - 2) 모티프적 유사성
 - 3) 한국역사의 영웅으로의 재현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문학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고 했다. 동일 텍스트가 각 시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나 형식으로 재현되는 수많은 사례들은 문학과 사회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레미제라블』이 현대의 뮤지컬로 시대와 장르를 변형시켜 오제뜨 중심의 스토리에 음악적 접목을 시도하여 대중적 인기를 끌고, 『聊齋志異』의 「倩小倩」설화가 「倩女幽魂」으로 영화화되면서 해학적 요소가 대거 삽입되어 관객 흥미 유발에 성공하면서 크게 흥행한 사례 등은 인문학이 현대사회의 문화콘텐츠로서 새롭게 조명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웅 홍길동을 통해 적서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등을 내포한 조선 중기사회에의 개혁의지를 천명했던 許筠의 『홍길동전』이 현대 미국의 그래픽 노블인 「The Legend of

* 숙명여대 강사

Hong Gil dong으로 재편되어 이혼 등 가족문제로 갈등하는 평범한 아이의 성장과 영웅화 과정을 그린 초월적 영웅 스토리로 탈바꿈한 것은 동양의 고전이 서양의 현대 문화에서 새롭게 변용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텍스트의 변용과 활용은 서사적 내용과 장르적 다양성이 풍부한 중국 고전문학에서도 빈번히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唐代 시인白居易의 「琵琶行」이 「青衫漏」·「青衫記」 등으로 재현되어 애정 고사 등으로 서사 구조를 변화시킨 사례, 漢 元帝와 王昭君 이야기를 다룬 元 雜劇 馬致遠의 『漢宮秋』와 關漢卿의 「漢元帝哭昭君」이 京劇 『昭君出塞』로 개작되면서 漢 元帝 중심의 이야기 구도가 王昭君 중심으로 바뀌는 사례 등은 위에 열거한 기타 텍스트들과 함께 문학이 시대의 문화나 가치관을 반영하여 새롭게 재현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제들은 ‘當代的 안목으로 새것을 창작하고 전통을 참고하여 오늘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¹⁾라고 문학의 의의를 정의했던 劉勰의 지적을 재고하게 한다. 이렇듯 원작의 출처와 상관없이 동서 문화권에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되는 인문학의 적응력과 현지 문화를 통한 재창조 사례들은 ‘상호문화성(Interkulturalität)’ 개념의 범주에서 그 성공과 적응의 원천을 찾아볼 수 있다.²⁾ 끊임없이 현재와 소통하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학은 문학이 존재했던 사회를 투영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척도이자 문화적 관점의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학과 사회문화의 긴밀성을 통감, 樂府 「木蘭詩」에서 비롯된 목란 이야기가 1,500여 년간 시대적·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시대적 재창조 과정을 통하여 그 형상과 주제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장르를 넘나드는 문학작품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³⁾ 그 과정에서 1920-30년대 한국에서 중국 北魏 악부 「목란시」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유독 주목하게 되었고 좀 더

1) 劉勰, 『文心雕龍·通變·贊』: “文律運周, 日新其業, 變則其久, 通則不乏, 趨時必果, 乘機無怯. 望今制奇, 參古定法. ……望今制奇, 參考定法。” (周振甫 著, 『文心雕龍全譯』, 中華書局, 1986.12)

2) Vgl. Wierlacher, Alois: Interkulturalität. Zur Konzeptualisierung eines Leitbegriffs interkultureller Literaturwissenschaft, in: Henk de Berg/ M.Prangel (Hg.): Interpretation 2000: Positionen und Kontroversen. Heidelberg 1999, S.155-181.

3) 이영숙, 「木蘭 形象의 時代 變遷과 文化 受容 研究」, 淑明女大 博士學位 논문, 2013.

심도 있게 연구할 의의가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당시 몇몇 작품의 수용양상에서 발견되는 장르나 인물 형상, 주제 상에 시대의 가치를 투영한 흔적과 시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20-30년대 당시 한국의 사회상과 민중들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희의 문학에 대한 정의와 상통하며, 한국의 목란 이야기의 변용 양상을 통해 당시의 문화적 양상과 가치를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여겨져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1920-30년대 한국은 일본과 서구 열강의 탐바구니에서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위기감과 문화적 혼돈이 최고조인 시기였으며, 문학과 문화 방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목란 이야기가 1920-30년대 한국에서 역사소설로 재편된 사례는 문학은 사회현상의 반영이면서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임을 증명하고 있다.⁴⁾ 1920-3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목란 형상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와 서구 사조의 유입이라는 시대 여건 아래, 문학이 민족의 가치관이나 시대적 관점상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어떻게 대변하는 지를 모색하는 작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작품들을 통해 성차별, 식민지, 가부장제의 잔존이라는 삼중의 족쇄에 갇혀있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이 시기를 거치며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2. 1920-30년대 한국 사회와 여성의 역할

1919년 한국에서 발생한 항일애국운동인 '3·1운동'은 중국의 '5·4 운동'과 주변 피식민지 국가들의 저항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만큼 국제 사회와 역사상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자 국내적으로 한국 민중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민족저항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의식이 각성되었고, 지식인들은 이를 토대로 민중을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3·1운동'에 여성들의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았던 점은 그간 도외시되었던 여성에

4) 천이두, 『문학과 시대』, 문학과 지성사, 1982, p.24.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 스스로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에서 서구의 여성해방이론이 유입되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각성되기는 하였지만, 뚜렷한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것은 '3·1운동'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을 비롯, 여교사, 종교계 여성인사 등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크게 활약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교육을 용인하고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등 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시대 한국의 여성은 표면상으로는 경제적·사회적·법률적으로 독립된 국민으로 지위상의 변화를 겪지만, 이는 일본의 식민정책을 유지하는 중요한 노동력이자 '동원'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 지위로, 가부장제 아래의 착취와 억압의 또 다른 형태였다.⁵⁾ 1910년대 일제는 식민지 경제 체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을 중심으로 산업, 무역, 재정, 금융, 운수 등 제반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토지정책은 핵심정책으로 과중한 소작료 및 이자, 세금을 부가시켜 80%에 이르는 농민을 경제적 기아상태에 빠뜨리게 되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농촌여성들은 일제의 과중한 노동착취와 턱없이 저렴한 노동임금을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 당시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인구 1003만 9219명 중 80%에 이르는 농촌여성인구 8백만이 이러한 가혹한 착취와 저임금으로 신음하였다.⁶⁾

1920년대에 들어서 일본 자본주의의 전례 없는 호황은 식민지 한국의 노동력 착취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값싸면서 남성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성들은 식민지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족쇄 속에서 피폐한 삶을 영위하였다.⁷⁾

5) 전경옥 외, 『한국 근현대 여성사』, 모티브북 2011, pp.58-59, 85-89 참조.

6) 송연옥, 「1920년 조선여성운동과 사상」 『한국 근대사회와 사상』, 서울: 중원문화, 2013, pp.265-268/ 288.

7) 1930년대 초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달할 정도로 징용·징병 등에 동원되는 남성 노동력을 충당하는 수단으로써 여성인력은 방직과 화학 공업, 광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산업인력으로 활용되어 과중한 노동과 착취에 시달렸다.: 이여성 외, 『數字 조선연구』 2집, 세광출판사, 1931, pp.72-74 참조.

이러한 상황에 불합리함을 느낀 지식인들의 주도 아래 전개되었던 여성 계몽과 교육의 필요성은 1919년 3·1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여성교육과 여권시장에 대한 지식계의 각성, 특히 여성들의 각성은 해방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일깨우는데 노력했던 문학회와 사회전반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자유를 절규함은 작년 3·1을 기념할 과거의 일대 사실이어니와 작년 이후로 조선에는 물질상 정신상에 급진적 각성이 래하여...그중에서도 가장 열렬하게 급진한 것은 부인계이다. 조선부인은 타락한 기생층에서 겨우 자기도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가질만치 각성하였고 남자와 아해의 중간에 처한 제2위자가 아닌 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일면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 내적 생활로 시하여 사회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직무와 권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⁸⁾

위의 글은 1919년 5월 '애국부인회'의 회장 김마리아가 '임시정부 지원'·'항일 독립투쟁' 등의 활동으로 검거되자, 삼일월이라는 필명의 기자가 1920년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7회에 걸쳐 '대구에 갖든일을 김마리아형에게'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게재한 편지글의 일부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20년대 초 결성된 조선여자교육회, 여성홍학회, 경성여자청년회, 조선여자청년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수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교육과 여성의식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성차별, 가부장제, 식민지 등 이중 삼중의 족쇄에 갇혀있던 여성들의 해방에 대한 열기와 욕구는 인텔리여성들의 주도 아래 여성노동자들의 직업의식을 고양시키고,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쟁취하려는 등의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⁹⁾

이러한 현상은 문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학 작품에서는 그간 무시되고 사장되었던 여성들의 개성이나 사랑의 감정 등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다루었으며,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들이 문학을 통해서도 전개되었다. 또한 자유연애나 자유결혼, 사회생활 등을 문학작품에서 긍정하면서 여성의

8) 「김마리아형에게」 『동아일보』 1920.6.21.

9) 이효재, 「일제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 연구」 『한국학보』 4집, 1975, pp.185.

주체적 삶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국내외 근대적 교육을 통해 성장한 여성지식인들이 3·1운동 이후 확보된 합법적 출판물과 결사체를 통해 자신의 주장과 개성을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신여성이라고 지칭되던 일본유학과 김일엽, 김명순, 나혜석¹⁰⁾ 등은 소설 작품을 통해 여성의 욕망과 자기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전근대적 여성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성해방을 제시하였다.¹¹⁾

1925년 한국에서 출간된 『조선명부전』은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 위주의 중국 번안소설과 판소리 개작소설이 성행하던 1910년대의 출판경향은 1919년 3·1운동 이후 역사적 실존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전기적 역사소설의 출판으로 판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조선명부전』은 이러한 문학계의 변화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던 사회전반의 경향이 맞물려 출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0명의 여성 주인공의 삶과 활약을 열전 형식으로 엮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물론 정치인·예술가로서의 공적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던 여성의 가치를 높이 산 이 작품의 의의는 전통 서사를 계승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개방되고 발전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1925년 발행된 『조선명부전』은 가부장적 지배 이념인 효와烈을 칭송하는 전통적 여성전기를 계승했던 『김씨열행록』이나 『박효랑전』과 비교할 때, 분명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명부전』은 女傑 召西奴, 良妻 閼英, 賢母 萬明, 女政治家 善德大王, 愛國婦人 智照, 信女 薛氏, 烈女 都彌夫人, 孝女 知恩, 女詩人 許蘭雪軒, 女畫伯 申師任堂 등 10명의 여걸, 여정치인, 여시인, 여화백 등 전통 가부장제의 이상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여성들의 가정적·사회적 뛰어난 면모를 강조한 작품이다.¹²⁾ 즉 脫 封建적이며 자주적인 행위를 보인 역사 속 여인들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자주적·독립적 의지와 각성을 독려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0) 한국여성연구소연구실, 『우리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p.332.

11) 배효진, 「1920년대 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세종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8, pp.119-120 참조.

12) 김지연, 「『朝鮮名婦傳』에 반영된 여성인식」 『여성문학연구』 9권, 2003, p.222 참조.

부남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이괄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평정한 정충신을 제치고 진정한 숨은 공신으로서 등장하는 『奇人奇事錄』·『逸士遺事』·『동아일보』 연재의 「夫娘」과 『丙子壬辰錄』 네 작품 역시 여성 개인의 능력과 활약을 강조한 『조선명부전』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1920-30년대 한국 역사소설의 성행과 그 의미

‘3·1운동’ 이후 민족 내부에서 야기된 변화의 현상들과 일제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정신들은 지식인들에 의해 문학을 통해 반영되었다. 지식인들은 소설을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효용의 도구로서 인식하여 이로써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과의 정치·사회적 소통을 꾀하였다.

民衆을 떠난 文藝가 잇다하면 그것은 거짓 文學이요 民衆을 떠난 文壇이 잇다하면 그것은 쓸애기통 文壇이다.¹³⁾

대중소설이란 단순히 대중의 향락적 요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요, 그들의 향락적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들을 모든 마취제로부터 구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사의 현 단계의 주인공의 임무를 다하도록 끌어올리고 결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소설이다.¹⁴⁾

일제식민지 아래서의 한국 국민, 특히 문화수준이 낮은 노동자·농민을 위해서 문학은 대중과 접근하여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대중을 떠난 문학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최화순과 김기진의 주장은 소설의 사회적 효용을 인식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의식을 대표하고 있다. 동시에 신문을 통해 소설의 대중효용론을 지지할 만큼 신문이라는 대중매체의 역할도 提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중들의 흥미만을 고려해서 창작된 통속소설과는 차별된 개념으로서 “대중에게 새로운 사

13) 최화순, 「문단병(文壇病) 환자 - 『민중과 예술』의 필자에게」 『동아일보』, 1926.11.2.

14)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4.13-20.

상을 실어 담을 수 있는 소설”¹⁵⁾, 대중의 “항략적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들을 모든 마취제로부터 구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사의 현 단계의 주인공의 임무를 다하도록 끌어올리고 결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소설”¹⁶⁾로서의 대중소설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의 대중화 과정에서 자주독립·애국·계몽을 주제로 한 신소설이 출간되는 와중에 역사 영웅담을 소재로 한 역사전기 소설이 성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910년 이후 흥미 위주의 중국번안소설과 판소리 개작소설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조선의 민족적인 것을 중시하지는 못하 아래 야담류 소설이 크게 성행하면서 확산되었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도 독자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적 정책을 펼치던 『매일신보』 등이 연애소설·탐정소설·야담류 소설을 연재하면서 역사소설 열풍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렇듯 1910년대 이후 『매일신보』 등 신문 매체를 통해 확산된 야담류 소설의 유행은 ‘저널리즘의 대중성’·‘민족서사로서의 전통’·‘제국주의 국가담론과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조건 아래 형성되어 1920년대 역사소설의 성행으로 이어진다.¹⁷⁾

1920년대 들어서는 ‘전기적 형식’의 역사소설이 성행하였다. 춘원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1926년 「단종애사」를, 1927년 「마의태자」를 연재하면서 대중독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자, 허구화된 방식을 통해 역사를 즐기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야담류의 역사소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부 지식인들은 역사적 사실을 현실에 적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이고 대중을 계몽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역사물을 활용하게 된다. 신채호의 다음 글을 보자.

歷史가 何物이 觀대 功效의 神聖함이 若此한가. 曰 歷史者는 其國 國民의 變遷消長한 實跡이니, 歷史가 有하면 其國이 必興하나니라. 國이 有하매 歷史가 必有하리니, 強國뿐 아니라 弱國도 歷史가 有할지며, 旺國뿐 아니라 衰國도 歷史가 有할지며, 文明國뿐 아니라 野蠻國도 歷史가 有할지

15) 최독견, 「대중문학에 대한 편상」 『중외일보』, 1928.1.7.

16) 김기진, 「대중소설론」 2 『동아일보』, 1929.4.15.

17)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 박사논문, 2006 참조.

어늘, 今에 言하되 歷史가 有하면 其國이 必興이라함은 何謂요. 曰其國에 氏士(시이저) 같은 雄主가 有하여도 國民이 不知하면 無와 一般이며, 其國에 拿破倫(나폴레옹) 같은 健兒가 有하여도 國民이 不知하면 無와 一般이요. 歷史가 既無하면 亡國에 必至하리니(중략)¹⁸⁾

신채호가 위 글에서 밝혔듯이, 신채호·박은식·장지연 등의 지식인들은 역사가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 민족사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재편하여 애국심 고취시키고 국권상실에 대한 저항정신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장지연의 『애국부인전』과 신채호의 『을지문덕전』·『이순신전』·『최도통전』 등이 그 대표적 작품이다.¹⁹⁾

주로 단편이었던 역사소설은 1920년대 후반과 일제 식민정책이 강화된 1930년대에 이르러 독자의 다양한 호응에 부응, 李光洙, 金東仁, 玄鎭健, 洪命憲, 朴鍾和 등에 의해 다수의 장편과 야담류의 역사소설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당시 역사소설은 이순신·을지문덕·나폴레옹·잔다르크 등 역사 속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민중들에게 이상적인 민족의 지도자 상을 제시하고, 계급을 초월한 민족주의적 이념을 호소하며, 민중의 삶을 조명하여 자각을 촉구하는 등 식민지라는 민족 수난기에 민중들에게 구국의지와 민족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이렇듯 대중적 관심을 목적에 둔 역사소설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 창조의 주체성을 인식시키며 크게 발달하는데, 그것은 대중적 호응이라는 독자 수용론의 미의식과도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중요한 뜻을 가진다.²⁰⁾ 즉 역사 속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결부시킴으로서 과거의 프리즘으로 현재를 돌아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들이 염두에 둔 대중에는 3·1 운동 이후,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어 주요 대상이 된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이 여성독자를

18) 申采浩, 「歷史와 愛國心의 關係」, 丹齋申采浩全集 下卷,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95, pp.72-73.

19) 李注衡, 「1920~30년대 文學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1984.

20) 申東育, 『1930년대 한국소설 연구』, 서울: 한샘, 1994, pp.16-17.

겨냥하여 창작되었듯이, 이 시기 역시 여성을 염두에 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 소설이 출판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윗 장에서 소개되었던 『김씨열행록』·『박효랑전』·『조선명부전』 등이다. 이미 조선시대 후기 『조선왕조실록』과 『정목란전』 등을 통해 이름을 날렸던 목란의 한국역사 속 등장은 이런 문학계의 한 흐름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3·1 운동 이후 여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역사소설 속에서도 오롯이 투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역사 속에서 늘 주인공이었던 남성 영웅이 성공이 실은 한 무명의 여성의 지략과 지모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기인기사록』·『일사유사』·『동아일보』 연재의 「부낭」·『병자임진록』의 네 작품은 역사소설로서 결혼이나 기존 사회질서에의 순응으로 귀결되던 전근대적 여성상의 전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역사 속 목란의 부활

1) 「木蘭詩」와의 연관성

1920-30년대 한국에서 역사서와 야담이 성행하면서 목란은 수많은 역사서와 야담 속의 인물로 재현되었다.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성행된 역사서와 야담의 성행으로 목란은 1624년 仁祖2년에 발생한 李适 난을 평정한 공신 鄭忠臣을 돕는 허구의 여성으로 등장한다. 夫娘 혹은 一朵紅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재현된 목란은 송순기의 『기인기사록』, 장지연의 『일사유사』²¹⁾, 이은상의 「부낭」²²⁾, 이종수의 『병자임진록』(一名 天下將軍: 이하 병자임진록으로 통일)²³⁾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괄의 난을 배경으로 한 역사서의 이들 여인들이 중국의

21) 송순기, 「討國賤娘子從戎 患金寇婦人料史」 『奇人奇事錄』 下篇, 문창사, 1921, pp.236-250.

장지연 「夫娘又附稗說一通」 『逸士遺事』 卷六, 滙東書館, 1922, pp.209-216.

22) 이은상, 「부낭」 1930.2.25.~3.2 『동아일보』 연재 「史上의 로맨스」 李朝篇.

23) 이종수, 『歷史野談 丙子壬辰錄 一名 天下將軍』, 盛文堂書店, 1934(『조선시소설총서』 75).

악부 「목란시」의 목란을 원형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이미 국문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장덕순과 이은경은 관련 논문을 통해 1920-30년대 정충신 관련 고사들이 「목란시」를 수용했음을 다음과 같이 논증한 바 있다.

이는 어쨌던 李适亂을 중심으로 한 「丙子壬辰錄」의 一朵紅의 說話는 木蘭이란 女人이 아버지를 代身하여 멀리 塞北地域에 出征하여 큰 功을 세우고 歸鄉하였다는 中國古代의 長篇敘事詩 「木蘭詩」와 彷彿함은 否認할 수 없다. 요컨대 李适의 반란과 이를 진압한 鄭忠信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하여 엮은 이 설화적 작품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여성의 내조를 木蘭詩의 즐거리로서 潤色한 것임을 推斷할 수 있다. 사실 당시 「朴氏夫人傳」「李适의 夫人」「梁夫人」(任亂時 金千鎰의 夫人) 등등 危局에 남편을 도운 여인들은 많았으나, 처녀가 직접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장으로 종군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안간다. 따라서 이는 木蘭이라는 선입관적인 소재가 작가에게 작용되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24)

따라서 〈부남〉 이야기는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의 정충신에 관한 이야기 및 역사적 기록들을 조합하여 형성되었으며, 그러한 서사화의 과정 속에 〈목란〉의 이야기와 같은 모티프를 사용하여 부남의 존재를 결부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25)

즉 조선후기부터 성행한 수많은 여성 여웅담이 대부분 남편의 조력자로서 가문을 부흥시키는 여성의 이야기가 중심인 가운데, 목란의 남장과 대부종군은 모티프 면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이며 그 구체적인 원류를 「목란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또한 조선후기부터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의 英祖시기 기록에 목란에 대해 ‘남장 여인’의 형상을 강조하고 ‘대범하고 용맹한 여성’ ‘여군’ ‘효행’의 이미지로 기록했다는 사실 또한 남장대부종군의 목란 이미지가 이들 작품들에 투영된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정충신은 1576년(선조9)~1636년(인조 14)시기에 발생한 이괄의 난을 평정

24) 장덕순, 「병자호란을 전후한 전쟁소설」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58, pp.6-7 참조.

25) 이은경, 「정충신과 관련된 여성인물 이야기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학회』, 2005, pp.433-434.

한 실존 인물이다. 이괄은 仁祖反正 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책봉된 데다가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외지에 부임하게 된 데에 앙심을 품고 1624년(인조 2) 정월 주동하여 난을 일으킨다. 실제 역사적 사건인 이괄의 난을 평정한 정충신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거나 허구적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역사서나 야담집에 다양하게 전해져 왔다. 『기인기사록』·『일사유사』·『부낭』·『병자임진록』은 여기에 정충신과 관련한 허구의 여성 인물 '부낭'을 등장시켜 그녀를 영웅화시키면서 여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즉 네 편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 이괄 난의 공신 정충신을 서사의 중심에서 물러서게 하고 부낭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이면에 있는 허구를 강조하고 있다. 가장 초기의 작품인 『기인기사록』의 내용이 다른 세 편의 기본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기인기사록』(下) 「討國賤娘子從戎 患金寇婦人料史」(上)

① 부낭(夫娘)은 평안도 자성의 여자로 목축·수렵을 업으로 삼는 집안에서 태어나 말 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다. 낭이 무예를 즐기며 목장에서 아이들과 대오를 지어 군사놀이를 하되, 스스로 말을 타고 대장이 된 후 나뭇가지로 궁시와 창칼과 기계 등을 만들어 여러 아이에게 나누어 주고 호령과 규율을 정돈하였다.

② 그 아버가 질책하여 가로되, “이는 남자의 일이다. 네 본분을 돌보지 않고 이를 배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낭의 말이 “훗날에 나라의 원수가 생기면 마땅히 부친을 대신하여 從軍하리다.” 하였다. 이후 날로 더욱 무예를 연습하였으며 야간에는 문자를 배워 병사를 공부하였다.

③ 인조(仁祖)대왕 때 평안병사(平安兵使) 이괄이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부낭은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男裝을

26) 정충신 관련 여성인물 이야기는 크게 두 부류로 전해지는데, 여기에서는 '부낭'을 중심으로 한 네 작품을 다루기로 한다. 전대의 야담집에 등장하는 이인 첩과 1920~30년대의 「부낭」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낭'을 들 수 있다. 정충신이 선사포 첩사 때 얻은 이인 첩은 전형적인 여성 이인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물로, '못생겼으나 재주가 뛰어나 정충신을 돕는' 여인으로 '박씨전'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주장된다. (이윤경, 「정충신과 관련된 여성인물 이야기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학회』, 2005, pp.419-420)

하고 이괄의 수하로 들어간다.

④ 부당은 실은 이괄이 나라에 반한 역적의 난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몸을 빼어 이괄의 난을 타도하는 정충신의 휘하로 들어간다.

⑤ 정충신은 부당을 참모로 삼고 이괄의 계략을 읽은 부당의 계책을 따라 안주성을 버리고 평양의 도원수 장만과 함께 이괄을 치는 선봉으로 나아가 큰 싸움 없이 승리를 거둔다. 인조가 공주로 파천한 틈을 타 서울을 차지하고 홍안군을 옹립한 이괄을 공략하기 위해, 부당은 바람의 방향을 읽어 봉화를 조작하고 군사를 매복시켜 이괄의 군사가 우왕좌왕하는 틈에 적장들을 소멸하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기인기사록』(下) 「討國賤娘子從戎 患金寇婦人料史」(上)

⑥ 난이 평정된 후, 인조는 큰 공을 세운 정충신에게 평안병사를 제수하고, 충신은 부당에게 자신의 수하로 머물 것을 청하며 부당의 연로한 부모까지 모셔오라 한다.

⑦ 부당은 연로한 부모까지 모셔오라는 충신의 청에 자신이 男裝을 했음을 고백한다. 충신은 잔치를 벌려 모든 장수와 병졸들에게 부당이 여자임을 밝히고 예를 갖춰 부당과 화족을 밝힌다.

⑧ 청나라가 천하를 석권할 기운을 읽고 화친을 유지할 것을 권유한 부당의 권고를 따라 인조에게 상소를 올리던 충신은 화친을 끊길 원하는 인조의 뜻에 반해 당진에 유배된다.

⑨ 부당의 예견대로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와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나 충신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부당은 충신을 위해 삼년상을 마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묘향산에 들어가 종적을 알 수 없더라.

(*外史氏曰 奇하도다 夫娘의 事여, 昔에 唐紫紹의 妻는 賊을 討하얏스며 日本 神功皇后는 新羅를 伐하얏스니 此는 卽 娘子로 從軍함이라. 其 赫赫한 名은 俱히 史籍에 昭錄되얏거니와, 夫娘의 史와 如함은 더욱 奇異함에도 不拘하고 正史에는 其名이 遺逸되고 다만 野乘에 出하야 其蹟을 存하얏슬 분이니 엇지 可惜할 바이 아니리오. 我 朝鮮의 閨門의 豪傑로는 應當 夫娘으로써 第一指를 屈한진녀.)²⁷⁾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일사유사』는 거의 동일한 전개를 펼치고 있고, 이은상의 「부당」은 애정적 요소를 부각시켜 소설적 재미를 강화했으며, 『병자임진록』은

27) 이윤경이 「정충신과 관련된 여성인물 이야기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에서 『기인기사록』을 25단락으로 분류한 것을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부낭」의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더욱 부각시켰다. 부분적 줄거리, 허구와 역사의 정도, 장르적 지향에서 드러나는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네 작품 모두 이팔의 난을 중심으로 부낭의 남장중군과 전장에서의 활약을 묘사하는데 치중했다. 다만 『병자임진록』에서는 ‘부낭’을 『溪西野談』의 沈喜壽의 연인 ‘일타홍’²⁸⁾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충신과의 애정담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점이 다른 세 작품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편은 부낭의 유년 시절과 남장대부중군의 과정 및 정충신을 도와 지략과 지모로 난을 평정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후편은 난이 평정된 후 부낭의 여성성 회복과 충신과의 혼인, 정충신의 죽음 이후 부낭의 말년 등이 전개되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목란시」의 모티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목란시」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한국 역사 속 인물로 재현된 목란 이야기의 주제와 의의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2) 모티프적 유사성

먼저 네 작품의 주인공 부낭(일타홍)과 이 목란을 모델로 하고, 이야기의 전개가 목란 이야기에서 소재를 취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란시」의 목란은 북위 선비족 출신의 유목민족으로 여성이지만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부낭 역시 조선 최북단 함경도 출신의 여성으로 목축과 수렵을 업으로 삼는 집안에서 궁술과 승마에 능숙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東市買駿馬, 西市買鞍韉, 동쪽장서 준마 사고, 서쪽장서 안장갈개 사며
南市買轡頭, 北市買長鞭. 남쪽장서 고삐 사고, 북쪽장서 채찍 사네(『목

28) 일타홍이 조선 개국공신 심덕부의 자손인 심희수라는 선비를 난봉꾼에서 개과천선 시켜 훌륭한 정승으로 만든 이야기로 『靑邱野談』에 전한다. 심희수는 선조때 우의정에까지 오르는 실존 인물.

란시))

아버지가 목축과 수렵으로 생계를 꾸리니, 부 남자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에 익숙했다. ... 스스로 말을 타고 대장이 되어 나뭇가지를 꺾어서는 화살, 창, 칼 등 을 만들어... 남자가 이때부터 무예를 익히는 틈틈이 서당에 가서 글자를 배우고, 낮에는 무예를 연마 하고 밤에는 글을 익혔다. (『기인기사록』 pp.236, 238²⁹⁾)

娘이自幼로好談武事호야 每之牧場에 與兒童으로 設部伍 作戰陳狀호
 디 自跨馬爲大將호고 折樹枝爲弓矢鎗刀器械等호야 分與諸兒호고 號令이
 嚴而紀律이 整호야 日以爲常호디 (『일사유사』 p.209)

「목란시」에서 목란은 중군을 결심한 후 바로 동서남북 네 곳의 장에서 군사 장비를 사 모으며 일사천리로 출전을 준비한다. 평소 주변 부족과의 빈번한 전쟁에 대처할 전투력과 생활터전을 위한 잦은 이동에 적응할 기동력을 갖춘 북방 유목 여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문은 『기인기사록』·『일사유사』인데, 목축과 사냥이 주업인 함경도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부녀의 뛰어난 승마능력 과 활솜씨, 전쟁 이야기를 즐겨 듣는 남다른 기질에 대해 적고 있다. 네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녀는 무예를 즐기며 아이들을 통솔하여 군사놀이를 주동하는 리더십을 갖춘 여성이다. 더욱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자신을 연마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부녀와 같은 여성 형상은 조선시대를 지배 하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는 낯선 형상이다. 이는 목란이 유목민인 선비족 출신으로 三從四德의 예에 부합한 漢族의 유가적 여성형상과는 동떨어졌듯, 부녀 역시 조선의 최북단인 함경도 출신으로 중앙의 유가적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란시」의 배경인 북위는 4세기 초엽부터 수십 년간 華北의 匈奴·羯·鮮卑·氐·羌族의 五胡가 정권다툼을 벌이던 五胡十六國(304-436)시대를 정리하고 중국 북부를 통일, 河北省과 河南省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陝西省과 만주지방

29) 본문의 『기인기사록』인용문은 송순기의 『기인기사록』을 간호윤이 새로 편집한 책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힌다. (송순기 저, 간호윤 역 『기인기사록』, 푸른 역사, 2008), p.238.

및 甘肅省의 일부를 점령한 이민족 왕조였다.³⁰⁾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세력다툼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민족 여성들은 유사시에 실전에 투입 가능한 전투력과 기동력 및 강한 생활력을 갖추어야 했다. 남성과 대등할 정도의 경제활동 및 군사활동에 기여도가 상당했던 이들 여성들에게 국가는 법률과 제도로써 그 권한을 인정하여 주었다.³¹⁾ 그러므로 당시 북위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 내 지위는 상당히 공고했으며, '모계중심'·'남녀평등'의 선비족 전통이 공공연하게 유지되었다.

부남의 고향이 변방의 함경도라는 점은 목란처럼 기질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함경도는 평안도와 함께 四郡六鎮의 설치를 위시한 조선 전기의 북방 개척에 의해 뒤늦게 조선의 강역으로 편입되어 사족지배체제와 性理學적 향촌질서의 수립이 늦어진 지방이었다. 서북지역은 지역민의 상당수가 변경지역의 군사적 방어를 담당할 인민을 이주시킨 조정의 사민정책의 추진아래 구성된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성리학적 유가이념이 그다지 지배적이지 않았던 탓에 신분적·제도적 규제가 비교적 느슨했다. 그러므로 서북지역의 여성들은 타 지역 여성들에 비해 유가적 이념에서 벗어나 다소 자유롭고 개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된 조선시대 烈女의 숫자 중 함경도와 평안도는 각각 35명과 32명으로 전체 694명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 역시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³²⁾ 또한 남편의 복수를 위해 兵使 李義豊에게 살인을 시도했던 守賢 처의 일화,³³⁾ 남편의 원수를 찾기 위해 14년간 남장을 하고 전국을 누비

30) 이공범, 『위진남북조사』, 지식산업사, 2008, pp.137-141 참조.

31) 실제로 북위 정부는 여자에게도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孝文帝 太和 9년 均田令에 남자가 나이 15세 이상은 40畝, 부인은 20畝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魏書』 卷110 志第16 「食貨志」: 「諸男夫十五以上, 受露田四十畝, 婦人二十畝, 奴婢依良, 丁牛一頭受田三十畝, 限四牛。所授之田率倍之, 三易之田再倍之, 以供耕作及還受之盈縮。諸麻布之土, 婦人別給麻田五畝, 奴婢依良。皆從還受之法。諸有舉戶老小殘無授田者, 年十一已上及瘡者, 各授以半夫田; 年逾七十者, 不還所受; 寡婦守志者, 雖免課亦授婦田。」(京仁文化社, 1999, pp.2852-2854)

32) 가부장제의 이념의 상징인 烈女의 숫자로도 서북지역 여성의 봉건적 규범의 규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된 조선시대 烈女는 총 694명이다. 이들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상도(171)와 전라도(138)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97), 충청도(71), 강원도(62), 경기 순이다 황해도(35) 함경도(35) 평안도(32)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함경도와 평안도를 합쳐도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장유승, 「조선 후기 서북지역 여성의 지역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10, p.126 참조.

다 마침내 원수를 갚은 평양의 安氏³⁴⁾의 행적과 『綠波雜記』에 등장하는 평양 기녀들의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삶, 劍舞 및 馬上歌舞를 일삼는 함경도 六鎭 기녀들의 용맹과 무예³⁵⁾ 등은 조선시대 공권력과 성리학적 이념의 지배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서북 지역 여성들의 생활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인기사록』·『일사유사』·「부낭」·『병자임진록』 네 작품에서 부낭이 삼중 사덕의 예 대신 병법과 무예를 연마하고, 승마와 궁술 등 전투력에 통솔력까지 갖춘 뛰어난 능력의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은 성리학적 이념의 개입이 극심하지 않았던 서북지역 여성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목란이 非漢族 문화권으로 역시 봉건예교의 이상적 여성의 요구와 관습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유목 여성이었던 점과 상통한다.

둘째, 부낭이 목란의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부친을 대신하여 남장종군한다는 설정이다. 사실 남장은 조선시대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들이 사회참여를 위해 선택하는 필수 장치로 자주 활용되는 모티프였다. 목란의 남장종군 역시 일찍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閨閣叢書』 등에 수록되었으며,³⁶⁾ 조선시대 문인들이 여성영웅소설에서 관습적으로 활용하던 소재였다. 이들 소설에서 여성들은 남장을 통해 여성성을 은닉하고 남성처럼 修學·登科 등 입신의 과정을 거친 후, 出戰·立功하여 사회진출의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잠재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정수정전』의 수정, 『홍계월전』의 계월,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부모의 원수를 갚거나, 타의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위해서 여자

33) “臣下去之後，艱得四千名軍卒，別爲作隊，輪次入番矣。入番之軍，無端出去，極爲無據，而此非死罪而逃者，臣無爲捕得治罪，而譏捕之際，實多可疑之端，若有故縱之情，故決捉三十度，而果爲致死，臣之罪犯，有難畢陳，厥后爲修理之事，移避獨在之際，忽有十餘人，不意乘間，持杖突入臣，本無勇力，且乏軍兵，而尙有一分紀律之，故不能直犯，而赤手空拳，其將何以措之耶？有一女人，急刃刺之劍，入四五寸矣。王靈所及不至死境，而緣臣無狀，國綱掃盡，論以邦憲，死有餘罪，而殿下不以爲罪，反寵異之，國恩，可謂罔極矣。上曰，女人所帶之劍大乎？對曰，不爲大矣。初不深刺，而蒼黃揮拂之際，自爾裂傷，而此等無前之舉，實由於人心之凶殘，紀綱之解弛也。”：『承政院日記』英祖10年(1734年 己亥) 9月27日。

34) 尹游, 「孝烈」『續平壤誌』, 卷2.

35)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여성의 지역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10.

36) 목란에 관한 언급은 『조선왕조실록』 영조 시기 2번, 『승정원일기』 영조 편에 8번 기록되어 있다.

可汗問所欲, 木蘭不用尙書郎 가한 소원 묻는데, 목란 尙書郎 필요
 없소
 願借明駝千里足, 送兒還故鄉. 천리마 빌려주어 고향으로 보내 주오

『목란시』에서 목란이 천자의 상급과 벼슬을 거절했듯, 부낭 역시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황금과 비단을 하사하며 함께 벼슬살이 하자는 충신의 보상을 거절하며,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만을 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목란의 행위를 본받아 했음을 『기인기사록』과 『일사유사』 후반부에 부낭이 여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각각 “木蘭의 行을” “敢行木蘭之行” 이라는 구체적인 구절로 밝히고 있다.³⁸⁾

3) 한국역사의 영웅으로의 재현

이렇듯 『기인기사록』·『일사유사』·『부낭』·『병자임진록』 전반부의 내용은 중국 악부 「목란시」의 원형을 거의 차용하여 부낭이라는 여성을 내세워 한국역사로 재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변 인물, 사건 및 주제는 대중에 대한 애국심 고취, 계몽 등 작가들의 각각의 의도에 따라, 특히 후반부는 작가가 의도하는 계몽과 흥미 유발을 위해 작가의 상상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재구성된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인조 2년 이괄의 난이라는 한국의 역사로 옮겨왔다. 1920-30년대 역사소설의 성행에 힘입어 이괄의 난도 역사소설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실제 역사적 공신 정충신을 돕는 허구의 여인 부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 된 것이다. 이괄은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우고 후금과의 분쟁 속에 국경을 경비한 인물이었으나 여러 공신들의 견제로 2등 공신으로 책봉된 데다가

38) 乃夜에 乘間言하야 曰 妾은 實非男子라 念老父不能從戎故로 敢行木蘭之行이러니 幸得爲公收用하야 周旋行間하다가 賴公英武하야 獲有今日하오니 如其不棄하시면 願效命帷下 하노이다 忠信이 敬歎曰 同居有月에 朦不之覺하니 吾固肉眼也로다 (...) 今日은 正吾吉日也라 諸君은 可具繡襦羅裾來하야 爲夫娘粧飾하고 宜亟辦花燭盛事하라(『일사유사』, p.213)

아들 전이 공신들의 횡포로 반역의 무고를 받기까지 하자 공신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난을 도모한다. 1624년(인조2) 정월 12,0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여 서울을 점령, 興安君 暹를 왕으로 추대하자 인조는 公州로 피란하였다. 네 작품은 바로 이괄이 난을 일으키기 위해 우국충정을 빌미로 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혹은 일타홍)이 자진하여 남장종군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목란의 효'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효'와 '충'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애국'이라는 능동적 행위 실현을 위한 여주인공 부당의 지략과 용맹에 초점을 맞추었다. 「목란시」의 목란이 부친에 대한 '효'에서 출발하여 공적을 세우는 '충'의 과정을 거쳐, 상급을 거절하고 귀향하여 다시 부모와 조우하는 '효'의 플롯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나 전통서사에서 여주인공이 남성의 조력자나 파트너로 설정된 것과 달리, 네 작품에서 부당은 지략과 지모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독립된 캐릭터로 형상화되었다.

충신이 娘子의 言에 依하여 策을 獻하야 曰 먼저 “北山에 據하는 자가 勝하리니”(『기인기사록』 p.170)

“괄의 난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그대의 힘이니 이것은 나의 바들 바가 아니요. 진실로 그대의 것이니(「부당」 4 『동아일보』 「史上의 로맨스」 李朝篇 1930.2.28)

진자는 정충신이 부당의 계책을 수용함으로써 승리를 예감하는 대목으로 부당의 기량에 의존하는 정충신의 존재가 부당의 우월함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로를 부당의 공으로 돌리는 정충신의 모습을 묘사한 후자의 인용문 역시 역사의 숨은 공신은 부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괄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장 부각된 것은 난 평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의 계략과 지모, 전술, 용맹 등의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실제 역사 속 공신 정충신은 판단력과 지략이 부족하여 부당의 능력에 의존하는 다소 소극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 正史와 野史 혹은 야담집에서 기록하고 있는 정충신은 나라에 대한 충정과 군대 통솔의 지휘력, 전투를 읽는 지혜와 전승의 지략, 때를 기다리는

신중함과 담대함까지 갖춘 인물이다.³⁹⁾ 그러나 실제 공신이던 정충신의 오류와 무능, 이괄의 난을 유발시킨 인조의 내정 운영의 미숙, 왕실 전복을 꿈꾸었으나 실패한 이괄의 지략과 지모 및 판단력 부족 등은 모두 부당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허구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1920-30년대 여성에 대한 인식의 각성과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다각적인 사회 변화 아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명부전』이 실제 역사 속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삼되, 이전의 전통적인 여성형상에서 벗어나, 시대를 초월하는 개인적 능력과 자질 및 대범함으로 역사를 빛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당이 역사 속 주인공으로 재현된 것은 1920-30년대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에 눈을 돌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들의 애국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유연애적 요소를 부가함으로써 대중의 호기심과 독서 욕구를 자극하였다. 『기인기사록』·『일사유사』·『부당』·『병자임진록』은 모두 부당(일타홍)과 정충신이 전우애에서 시작하여 연애를 거쳐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는 『목란시』에서 戰後 목란의 귀향과 여성성 회귀와 전혀 다르며, 오히려 조선 후기 여성영웅소설에서 차용한 才子佳人적 요소를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남장대부종군으로 고충과 어려움을 겪었던 부당의 갈등은 정충신과의 혼인이라는 대단원의 해피엔딩으로 결말지어지는데, 이는 대중의 독서 욕구를 자극하는 상업적인 대중 문화적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開我東閣門，坐我西閣床。	동각 방문 열고 들어가, 서각의 의자에 앉아
脫我戰時袍，著我舊時裳	전쟁터 옷 벗어놓고, 옛 시절 치마 입고
當窗理雲鬢，對鏡貼花黃。	창가서 귀밑머리 손질, 거울 앞 화황 붙 이네
出門看火伴，火伴皆驚惶：	나가 전우 보니, 전우 모두 당황하고 놀

39) 『東稗洛誦』·『靑邱野談』·『海東野書』·『練蔡室記述』 등에는 권율·이항복 등과의 일화를 통해 정충신의 신중함, 담대함을 묘사하는 다수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라며

同行十二年, 不知木蘭是女郎. 동행 십 이년, 목란 여자인 줄 몰랐네

여러 장수들이 비로소 부 남자가 여자임을 알고는 모두 놀라워했다. 그 날 충신이 남자와 성대하게 혼례를 마쳤다. 밤이 늦어서야 혼인잔치가 모두 끝나자 둘은 군막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이 운우雲雨의 즐거움을 누릴 때, 많은 별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며칠 후에 남자는 양친을 모셔 군영 안으로 옮겨 살게 하고 효도로 봉양했다.(『기인기사록』 p.246)

첫 번째 「목란시」의 결말은 전장의 영웅에서 효심 깊은 여식으로의 신분적 회귀와 철갑옷보다 거울과 치마가 더욱 친근한 여성으로의 성적 회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귀향하여 조용히 여성의 본분을 회복하는 담담한 목란의 모습은 기존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1920-30년대 한국에서 재현된 작품 속에서 부남은 자유연애와 혼인까지 담론하며 여성의 욕망과 혼인의 자유를 용인하고 있다

1930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 동안 『동아일보』에 「史上의 로맨스」라는 타이틀로 연재된 「부남」은 연애적 요소를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다음 대목은 작품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락이다.

“네, 본시 자성서 살았사운데 늙은 아버지의 대신으로 소녀가 납복을 하고 수자리에 갖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병사의 은혜를 이러케 바든 것입니다”하고 부남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고개를 숙인다... “병사께서 소녀를 버리지 안코 거두어주신다면 또한 소녀에게는 더할 수 업는 복이겠습니까”...정충신도 그제야 부남을 보니 그 얼굴의 아름다움이 분명한 녀자이었다...그리하여 두사람은 가튼 武將으로써의 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남녀의 사랑 속에서 그날 밤을 속삭였다.(「부남」 5 「史上의 로맨스」 李朝篇 『동아일보』 1930.3.1)⁴⁰⁾

중군을 스스로 선택하고, 전장에서 능동적으로 계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용맹과 능력을 발휘했던 부남은 충신을 상사가 아닌 이성으로 느끼는 자신의 본심을

40) 「부남」 5 『동아일보』 「史上의 로맨스」 李朝篇 1930.3.1.

적극 드러내며 청혼을 유도하며 여성으로서의 삶에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남의 연애와 혼인에 대한 대담함과 적극성은 분명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삶의 궤적을 탈피한 여성의 독립적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네 작품에서 부남은 「목란시」에서 목란이 갑옷을 입고 창칼을 휘두르며 적진에 진군하며 12년간 상무적 기상을 발휘했듯, 국가와 부친을 위해 스스로 종군을 결심하고, 스스로의 판단 아래 소속을 선택하며, 지략과 지모로 승리에 기여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 혼인의 상대를 선택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20-30년대 사회상과 시대 상황에 반응하여 당시 여성들과 대중들에게 구국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와 인물 형상을 변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5. 나가는 말

1920-30년대 일제 식민지 아래 형성된 야담류의 역사소설은 대중계몽의 목적으로 역사를 문학의 소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목란의 대부남장종군 모티프를 활용하였다. 목란이 부남이라는 한국 역사의 허구적 여성영웅으로 재현된 사례는 문학이 사회를 투영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척도이자 문화적 관점의 잣대임을 다시 한 번 재고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중성 역시 시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시대 목란 이야기의 재현에서는 대중성이 계몽과 의식의 각성이라는 시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20-30년대 한국 문학에서 대중에게 현실 응집력을 심어주기 위해 민중교화를 위한 역사차용의 형식으로 활용된 목란 이야기의 재현은 문학이 사회현상의 반영이면서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작품들은 목란 원형의 도덕심이나 정신에 그다지 치중하지 않았다. 이괄의 난을 평정했던 공신 정충신조차 正史와는 다르게 여성인 부남에게 의존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듯, 목란은 이름

을 '부남'으로 바꾸어 1920-30년대 식민지 하 한국의 민중계몽을 위한 도구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목란이 갖는 대중적 친밀성과 기질적 용맹, 이념적 효과충 등이 당시 감성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또한 野談이나 역사소설 등의 의미는 대중적 친밀도가 높은 인물을 활용하여 소수특권계층이 아닌 대다수 민중 집단의 감성을 겨냥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非漢族문화권인 선비족 출신의 처녀 목란은 비주류인 다수의 비특권계층인 민중의 속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목란에게는 대중들에게 널리 수용되고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1920-30년대 역사소설에서 정충신보다 목란의 화신인 부남의 형상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민족서사로서의 전통을 애국심으로 연결 가능토록 했던 저널리즘의 대중적 성행과 문학의 대중효용론을 전파했던 신문이라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뒷받침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20-30년대 식민지 치하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민족적 특성 및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애국과 계몽의 한국 역사 속에서 목란은 대중적 친밀성과 여성이라는 마이너리티적 요소, 남장이라는 소설적 흥미, 대부중군이라는 충효의 도덕적 감성, 자유연애와 혼인이라는 여성의 재인식 등을 바탕으로 일제라는 시대적 감성에 적응하고 문학의 대중효용론을 요구한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상을 창조해낸 것이다.

〈參考文獻〉

- 송순기, 「討國賤娘子從戎 患金寇婦人料史」 『奇人奇事錄』 下篇, 문창사, 1921.
 송순기 저, 간호윤 역, 『奇人奇事錄』, 푸른 역사, 2008.
 장지연, 「夫娘又附稗說一通」 『逸士遺事』 卷六, 滙東書館, 1922.
 이은상, 「夫娘」 1930.2.25.~3.2 『동아일보』 연재 「史上的 료만스」 李朝篇.
 이종수, 『歷史野談丙子壬辰錄一名天下將軍』, 盛文堂書店, 1934(『조선시소설총서』 75).
 구성희, 『한권으로 읽는 중국여성사』, 이담, 2012.
 金采洙 著, 『동아시아의 文化와 文學』 I, 보고사, 2001.

- 金采洙 編譯, 『동아시아의 文化와 文學』 II, 보고사, 2001.
- 백영서 외, 『동아시아 근대이행의 세 갈래』, 창비, 2009.
- 金台俊,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7.
- 송연옥, 「1920년 조선여성운동과 사상」 『한국 근대사회와 사상』, 서울: 중원문화, 2013.
- 윤혜린 외, 『탈/근대 아시아와 여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 임우경, 『근대 중국의 민족서사와 젠더』, 창비, 2014.
- 李學逵, 『洛下生藁』, 日本, 天理大學 圖書館, 因樹屋集.
- 임형택·진재교 외,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 장효현, 『韓國古典小說史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전경옥 외, 『한국 근현대 여성사』, 모티브북, 2011.
- 천이두, 『문학과 시대』, 문학과 지성사, 1982.
- 한국여성연구소연구실, 『우리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6.
- 김지연, 「『朝鮮名婦傳』에 반영된 여성인식」 『여성문학연구』 9권, 2003.
- 김홍영, 「한·중 여성영웅소설 비교 연구」, 강원대 국문과 박사논문, 2011.8.
- 배효진, 「1920년대 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세종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8.
- 柳在華, 「1930년대 한국 역사소설 연구」, 단국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6.
- 이운경, 「정충신과 관련된 여성인물 이야기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학회』 2005.
- 張德順, 「병자호란을 전후한 전쟁소설」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58.
- 장효현, 「애국계몽기 창작 고전소설의 한 양상」 『정신문화연구』 4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장효현, 『韓國古典小說史研究』 pp.520-521,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田溶文, 『韓國 女性英雄小說의 研究』, 목원대학교 출판부, 1996.
- 최지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2015.2.
- 胡乙, 「論孤島電影工作者的抗日精神」 『江蘇經貿職業技術學院學報』, 總第93期, 2011年 11期.

〈Abstract〉

The reason why we are worthy of notice on the texts which was written in 1920-30 in Korea based on the Chinese character "Mulan" (『Mulanshi(木蘭詩)』)- such as

『Giingsalok』 『Ilsayusa』 『Bunang』 『Byungjaimjinlok』- is that they had reflected the spirit and culture of the age and cultivated important cultural domains- especially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modern Korean society. Women's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s in the March 1 movement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fforts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multi-cultural aspects caused the publication of female heroic novels in which women should challenge to acquire new life through the overcoming of pain and gained the improved women's social status. These texts had chosen motif of mulan's male attire, participation in a war on behalf of he father, changed her name as 'Bunang' and put her into the stage of Korean history - Lee-Guwal' riot. The keypoint we should focus is thant inseed of Chung-Chungshin who was the real hero of history, Bunang's heroic aspects like the bravery, resource, brightness and challenge spirit as a woman had been magnified.

In the 1920~30 colonial era which could be classified as a part of Korea history of the patriotism and cultural enlightenment that people tried to maintain the traditional Korean values and ethnic characteristics, Moklan had been evolved its cultural images by adaptation of the atmosphere of the Japan colonial era based on the popular intimacy, the character as a minority woman, the ethical sensitivity and free love as well as the interests to a woman in male attire.

關鍵詞: 木蘭, 歷史小說, 정충신, 부낭, 1920-30년대, 여성해방, 3·1운동, 대중문학, 저널리즘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